

■ 기조 강연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고 부 자 (전 단국대학교 교수)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1. 들어가는 말

전통은 지역이나 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발생하고 변형되지만, 고유의 틀을 지니면서 이어간다. 자연환경 및 생활상을 반영하는 첫 얼굴인 입성[衣服, 服飾]도 그중 하나이다. 제주에는 특히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유산(遺産)으로 입성거리 갈옷이 있다.

이 갈옷은 뚝고 잘고 씨 많은 제주 ‘뽕(뽕)감’으로 제주의 자연기상(氣象)과 사람의 땀,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만들어 낸 작품이다. ‘대땀이(머리통)가 벌러지는(깨지는)’ 더운 한 여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옷에다 방망이로 바수고 짚이긴 감을 넣고 어깻죽지가 빠지게 치댄 다음 햇볕에 앞뒤 골고루 바래서 얻어 낸 걸작이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우수한 자원이며, 제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갈옷의 원형은 한복(韓服)인 윗옷[上衣:저고리]과 아래옷[下衣:바지]이며 홑옷이다. 여기에 감물을 들여서 입는 윗옷을 남녀공용으로 갈적삼(赤衫)이라고 했다. 아래 입는 것 중에서 남성 것은 갈중이, 여성 것은 갈굴중이다. 한복은 펴 놓으면 평면이라 갈옷 거리로 합리적이다.

현재까지 전통 갈옷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물은 반세기를 넘는 것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갈옷은 1960년대까지도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노동복이자 생활복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영조(英祖) 39년(1763) 안덕면 창천리 사람姜渭聘(姜渭聘)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때 입고 갔던 갈옷 덕으로 특별히 사면(赦免)을 받았고,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765)에도 감물을 들인 옷을 농가에서 입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실용성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문헌이나 신문 기행문 등에도 나오고 있어 계속 입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부터는 감물공예기법(工藝技法)이 개발되면서 옷과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들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은 생산공정의 변화 등 다방면으로 변신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손으로 바수던 감은 기계가 대신하고,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었던 감즙(梅汁) 원액(原液)을 물 섞인 감물로 만들어 병에 담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일 년 내내 쓰고 있다. 색을 내는 바래기도 한여름 띄약별일 때만이 아닌, 쾌청한 날이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2023년 현재는 혼합염료의 개발과, 옷 외에 모자, 신, 가방, 침구류 소품 및 장식거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염색물공예품까지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섬유에도 염색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갈옷의 장점 살리기와,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통 기법(正統技法)으로 완성된 한복(韓服) 갈옷, 정통감물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탁도 주의사항으로 기계세탁(드라이크리닝)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왜 제주 갈옷이 보존·전승되어야 할 미래무형유산으로 거론되

는 걸까? 이는 그 귀한 가치와 함께 본연의 원형을 되살리면서 더 바르게, 더 다양하게 계승 발전시켜 가야 할 책무와 과제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2. 어릴 적 갈옷 생활상

1) 어린 시절 잔상(殘像)

1944년생인 나는 1950년부터 제주시 오라일동(吾羅一洞) 속칭 ‘남새’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지금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쪽이다. 여덟 집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집 뒷밭에는 고인돌도 있었고, 넓은 ‘우영팻(텃밭)’과 뒷뜨락에 크고 작은 감나무가 여럿 심어져 있었다.

우리 집에서 갈옷 만들기는 1962년 내가 제주를 떠나기 전에는 해마다, 그 후 몇 차례 더 했다. 그때 노동복은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주로 윗옷은 마고자 꼴(模樣, 形態)로 변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개량한복(改良韓服)이라 했다. 이 옷은 전통 적삼과 서양 옷인 윗옷(上衣) 블라우스를 절충한 것으로 등길이는 허리까지 길게, 깃은 목을 둥글게 파고, 단추는 여러 개 달았다. 남성들도 입었는데 특히 외출용에는 대부분 주머니를 달기도 했다. 여성옷으로 아래는 주로 일제강점기 말에 나온 몸빼를 입었다.

어머님(1914년생)은 적삼과 개량한복도 직접 만들어 입으셨다. 옷은 어머님이 재봉틀로 만들고, 감물들이 때는 어머님과 딸들이 같이 했다. 바래기부터는 딸들 몫이었다. 갈옷 만들기는 주로 제주 여성들의 여름철 큰 과제이며, 일거리 중 하나였다. 어머님 갈옷은 평생 농꾼이어서 해마다 마련했지만, 아버님(1911년생) 깃은 공무원이었으므로 해를 거르기도 했다. 자식들은 낡은 옷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옷감은 주로 쓰던 미녕(木綿, 무명) 대신에 1940년대부터 기계로 짠 폭이 넓은 광목(廣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감 따기는 감씨가 여물기 전에, 새벽에 그 날 날씨를 보고 했다. 감물들이기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었다. 짙하게 맑은 날이라야 태갈 좋은 갈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냇(木)도구리에 탄 감을 놓고 덩드렁막개로 잘게 비수어 으갠 다음 미리 뒤집어 둔 옷을 냇도구리에 퍼 넣고 으갠 감물(糊)과 함께 치댄다. 감물이 옷감의 울과 울 사이와 시접까지 골고루 배도록 어깨죽지가 빠지게 주물렀다. 다음은 옷에 달라붙은 감쭈시(감찌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겉으로 뒤집는다. 뒤집은 옷은 구겨진 곳을 반듯하게 펴서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은 다음 한 면(面)이 하늘을 보도록 명석 위에 편편하게 널어 햇볕에 바랜다. 한복은 펴놓으면 편편해서 바래기에 알맞고 고르게 물(水)이 난다. 갈옷이 가진 최상의 질은 바래기에서 결정된다. 밤에 ‘노릇’(이슬)을 맞으면 최상의 작품이 나온다. 이슬이 내리는 쾌청한 밤에 주로 ‘눌’(남가리) 위에 편편하게 널었다. 일손이 귀할 때나, 발이나 들일을 갈 때도 가지고 가서 잔디나 돌 위에서 말렸다. 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물허벅을 지고 갔다.

바래기는 앞면이 햇볕에 완전히 마르면 뒷면으로 뒤집어 낸다. 이때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마르면 물에 푹 적시면서 바래는데, 앞과 뒤 뒤집기는 마르는 대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바래는 과정이 더해 갈수록 흰색이 점차 발갛게 붉은 벽돌색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나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쯤 걸린다. 이때 비가 계속 오거나 장마가 끼면 한

해 갈옷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만다. 감즙의 탄닌 성분은 제때에 제대로 바래지 못하면 갈옷 본연의 상큼하고 칼칼한 맛과 빛깔을 잃고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불품없는 태깅이 되어버린다. 내가 직접 만들고, 완성한 갈옷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은 매우 드물다.

내가 제주에서 갈옷만들기 실습을 여러 번 육지 학생들에게 정통방식으로 시도했다. 바래기 시간이 부족하므로 마무리가 덜된 상태로 가져가서 완성하도록 했다. 완성된 것 중에 촉감이나 색 등 제대로 된 것은 한 점도 없었다. 이는 햇볕 아래서 제 때, 제대로 해야 하는 바래기과정의 미숙함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감물 들이는 날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기대감이 컸다. 바순 감을 옷에 치댄 다음에 나오는 투명하고 쫄득한 감씨를 주워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 어머니의 갈옷에 얽힌 추억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여름 1998년 8월 10일. 우리 집에서 갈옷을 만들었다. 남성 것은 갈적삼에 갈중이, 여성용은 갈적삼에 갈굴중이었다. 바느질부터 바래기까지 열흘쯤 걸렸다. 그 때 어머니는 편찮으셨지만, 내가 어머니의 재간(才幹)을 익히고 물려받고 싶은 욕심에 부탁드려 시작된 것이다.

바느질은 어머니는 재봉틀로, 나는 손바느질로 했다. 옷감은 시중에 파는 광목(廣木)으로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드신 옷들은 어딘가 웅색한 느낌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용 갈적삼이 더 그랬다. 길이는 짧고 소매통도 좁은데, 품도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 작품을 잔뜩 기대했는데 뭔가 상상 밖이었다. 어머니께 옷감을 아꼈다고 투덜댔다. 나는 유물정리와 출토현장에 민속조사까지 많이 해서 제법 이 정도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큰 스승으로 존경하는 어머니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런대로 자신과 긍지도 컸었다.

어머니 답변은 “갈옷은 노동복이기 때문에 넓거나 크면 걸리직거리서 불편했고, 또 이전에는 옷감이 귀해서 이렇게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다. 그 말씀에 갑자기 갈옷의 민낯들, 한 올타리 안에서 산 두 세대가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등, 그제야 제주 갈옷의 본색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한 치도 낭비하지 않고 한 올까지도 소중했던 시절, 조녕(儉約) 정신이 댄 그 명작(名作)의 속내를 알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어머니가 만드신 적삼은 당신이 한창 일하던 시절 일꾼 옷, 제주 노동복이었던 것이다. 나는 갈적삼 아닌 일반 적삼을 만든 셈이니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특히 가난하고 늙은 할머니들의 등판 허리 잔등이에 가로로 띠처럼 까맣게 탄 것을 본 일이 있다. “준 등띠”라고 했다. 속옷 없이 길이가 짧은 갈적삼만 입고 일하기 때문에 드러난 허리 부분만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린 자국이었던. 얼마나 따갑고 아리고 가려우셨겠는가?

3) 재생(再生) 재활용거리 갈옷

갈옷은 실용, 위생, 경제, 재생, 재활용, 친환경 등 효용 가치가 탁월한 옷이다. 그중에서도 입던 옷이 낡으면 다시 감물을 물들여서 바래 입었다. 이 옷들이 낡으면 재활용거리로, 또는 살림살이 도구들을 재생시키는 보수용으로, 마지막엔 아궁이 불쏘시개로 끝났다. 갈옷은 마지막까지 천연무공해자원으로 마감되었다.

(1) 초생아 첫 싸개 : 아버지 갈증이

아버지가 입다가 낡은 갈증이는 재활용거리로 초생아의 몸을 싸는 첫 싸개로 쓰였다. 아기 배꼽 정리를 마치면 갈증이를 바닥에 펴놓고 아기 머리를 갈증이 가랑이 밑 사이에 놓힌 다음 두 가랑이로 몸을 엇갈려 덮고 싰다. 다음으로 아기 발 쪽에 있는 허리말기는 아래서 위로 올려 덮고 감싸면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어깨에 바람도 들지 않는 완벽한 싸개이자 옷이 되었다.

제주에서 초생아의 목욕은 3일 만에 시켰다. 물이 귀하고 산모의 산(産) 처리나 산바라지는 물론이고, 아기만을 돌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갈색으로 변한 낡은 갈옷은 아기의 연한 살갓에 닿았을 때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라 잘 맞으며, 목욕을 시키지 않은 채 피와 자궁 안의 오물이 엉킨 아기(“핏덩이”이라 했다)를 싸두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초생아 싸개는 물론 특히 남아(男兒)에게 사용되는 물건들은 철저히 남성 것으로만 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라 했다. 특히 갈증이는 생후 첫피복거리이므로 더 각별했다.

(2) 헌 갈옷·일상복 재생 : 감물

감물들이기는 낡은 옷을 살리는 재생의 연금술이기도 했다. 갈옷은 여름이면 해마다 거르지 않고 새 옷을 장만했다. 일 년쯤 입으면 색은 칙칙해지고, 촉감이나 강도도 뻣뻣하고 상큼했던 것이 후줄근해진다. 이 낡은 옷은 새 옷에 감물을 들이고 낡은 감찌꺼기에 다시 물을 부어 걸쭉한 감물을 만들고 주물러서 바래면 색이나 강도가 좋아져서 다시 입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입기 시작한 몸빼는 해방과 전쟁으로 삶이 어려웠던 시절 노동과 일상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물을 들여서 갈몸빼로, 입다가 낡은 삼베나 모시옷 특히 적삼이나 고의(袴衣)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모든 서양복에도 응용된다. 운동복에서부터 런닝셔츠 등 메리야스 제품, 와이셔츠, 향토예비군복 등 입다가 낡은 면(綿) 류는 모두 감물로 재생되었다.

(3) 무공해자원

입다가 낡은 것 중에서 성한 갈옷으로는 아기 첫 싸개를 시작으로 아기 포대기나 지성귀(기저귀)로 제일 많이 이용되었다. 바구니나 명석 가재도구 등 오래 써서 낡은 것들이나 특히 가장자리 [邊]는 조금 더 성한 부분을 오려내어 보수하였다. 짐을 짊어지는 질빵이나 가는 끈 거리로 발라내어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낡아 더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청소걸레로 썼다. 낡은 것은 색이 흐려지고 탁하게 변했지만 더러움이 덜 타 보이고 까슬하면서도 부드러워서 걸레로 쓰기에 매우 합리적이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궁이 불쏘시개로 마감했다. 갈옷은 완벽하고 확실한 최상의 재활용 무공해자원이었다.

갈옷 → 첫 싸개 → 포대기, 지성귀 → 보수, 끈거리 → 청소걸레 → 불쏘시개

4) 상쾌한 촉감 : 위생, 경제, 실용성

갈옷은 일하기에는 어떤 날 어디서 입어도 편하고 만만한 옷이다. 새 옷일 때는 풀을 세계 먹인 옷처럼 뽀뽀하여 살이 닿는 목이나 겨드랑이 쪽은 까칠하다. 그러나 몇 번 입고 빨면 살가워진다. 느낌은 차츰 약해지지만 남아도 유지된다.

비나 땀에 젖어도 살에 달라붙지 않고 촉감이 좋다. 땀이나 비에 젖은 옷을 빨지 못하고 두어도 썩지 않으며 나쁜 냄새도 덜 난다. 보리까끄라기나 오물도 잘 묻지 않는다. 오물이 덜 묻으니 매일 입고 일해도 한 벌이면 2~3년 정도 견딘다. 쇠파리나 모기 같은 독충의 피해도 덜하다. 더운 여름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냇가나 마을에 있는 물구덩이에서 목욕을 하였다. 갈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은 비누 없이 대충 주물러서 빨아 입었다. 비누는 귀하기도 하였으나 옷에 더러움 등 오염물이 다른 옷에 비해 덜 묻고 묻어도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베인 땀이나 오염이 물에 잘 빠지기 때문에 덜 써도 되었다.

갈굴중이는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 굴중이는 단속곳으로 조선시대 여성용 속옷 중 한 가지이며 지금의 팬티나 속치마와 같은 것이다. 옷감은 많이 들지만, 가랑이가 넓고 커서 발일을 할 때나 앉아있을 때 편하다. 대소변을 볼 때는 허리를 내리지 않고 넓은 부리 한쪽을 걷어 올렸다. 갈굴중이의 넓은 부리는 일할 때 간편하게 무릎 아래 독대님(끈)으로 졸라맸다.

한편 갈몸빼는 옷감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고, 허리와 부리에 주름을 잡거나 고무줄을 넣어서 입고 벗거나 활동하기에 간편하다. 해방 후 1950년대부터 산업화과정에 들어서면서 일반여성들도 일거리가 많아지자 몸빼를 여러 가지 옷감이나 색으로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다.

5) 기능성 변화

갈옷은 차츰 노동복으로서의 기능과 시대성이 반영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크기는 다른 옷에 비해 몸에 맞게, 부속도 간편하게 처리되기 시작한다. 갈적삼은 길 소매 깃 동정 옷고름으로 구성된다. 옷고름은 매듭(들마귀) 단추로 달았다. 옷의 크기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남성 것으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 것으 1900년대 후반부터 달라진다.

여성 갈적삼은 1900년대 중반까지 등길이가 짧아서 허리가 노출되고 목은 깃이 감싸므로 답답했다. 단추는 앞여밈으로 하나만 달기 때문에 일 할 때는 앞이 벌어져서 불편했다. 남성 갈중이는 대님이나 허리끈 등 부품들은 짧고 가늘게 만들거나 특별히 따로 마련하지 않고 다른 끈을 쓰거나 없으면 새끼줄을 이용하기도 했다. 옷감이 귀하니 아껴야 했고 또한 간편해야 했기 때문이다. 차츰 길이를 짧게 잡아 부리에 끈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사회활동이 바뀌면서 마고자가 이용된다. 마고자는 감물을 들인 노동복 갈옷과, 색이나 옷감을 달리한 외출용이 같이 유행한다. 특히 남성용 외출복에는 포켓을 단 것이 특징이다.

제주 사람들은 아버지의 갈중이로 만든 포대기에 싸여 세상 삶이 시작되고, 커서는 죽을 때까지 갈옷을 벗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은 '떡썰일'(慶弔事) 즉, 먹고 돈과 시간 쓰는 일이나 먼 이웃에 방문할 때도 겉에는 외출복을, 안에는 갈옷을 입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위에 갈적삼, 아래는 갈굴중이에 겉에는 미녕치매(무명치마) 하나를 덧입었다. 일터에 가서 일할 땐 겉치마만 벗으

면 된다. 또 집으로 올 때 물을 길고 올 물허벅을 지기도 했다. 일거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방문처에서 일터로 바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

3. 1900년대 중후반 갈옷 실태

복식사(服飾史) 분야 연구는 1960년대만 해도 주로 유물과 문헌자료 중심이었다. 특정 지역의 민속의생활사에 관한 현장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나는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민속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겼다. 제주도는 특히 관련 문헌이나 유물 등의 자료가 드물고 귀하었으므로 민속학적 접근으로 현장연구를 택하였다.

1) 1960년대 후반 : 제주 민속의생활 연구 시작

1963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경상남도 산청, 통영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의 의생활상은 제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1971년 11월 석사학위논문 준비하면서 제주도 의생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주관 제주도 지방의 민속종합조사 의식주 분야에(『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道篇, 1974.12.), 1973년에는 제주도 주관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에 참여했다(『濟州道文化財及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그 후 제주도 현지조사는 박사학위 논문(『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的 研究』 1994. 12월.) 등을 쓰면서 계속 이어졌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동안 제주도 민속의생활사 연구의 자료를 제공해 준 면담자들은 1886년생부터 1943년생까지 제주시 36명, 북제주군 34명, 남제주군 54명으로 총 124명이다.

2) 1970년대 : 개량한복, 재활용 갈옷 등장

갈옷은 1970년대까지도 시골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용으로 위(上衣)는 개량한복이, 아래(下衣)는 갈몸빼가 주류를 이루면서 이어간다. 한편 남성들은 입다가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향토예비군복 등 주로 면(綿)류로 만든 것들에 감물을 들인 재활용 갈옷이 노동복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3) 1980~90년대 : 다시 살아나는 갈옷

1980년대는 환경과 향토성을 살리면서 내 것을 찾고 이어가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1995년 8월 2일 여름방학 때 오일시장에서 “갈옷을 판다”하여 찾아갔다. 제주시 사라봉 근처였다. 기대를 걸었던 옛 갈옷은 아니었지만, 감물 염색한 옷들이 눈에 띄었다. 갈적삼은 남녀 것들 모두 거의 다 개량한복으로 변했으나, 남자 아래옷인 갈중이는 그런대로 옛날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갈중이가 맘에 들었다. 현장에서 갈중이 안을 살펴보니 감쭈시가 붙어 있었다. 고맙고 반가움에 옛것을 상상하면서 믿고 샀다. 한여름 무더위에 아래 잠옷거리로, 또 연구자료로 활

용할 만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집에 와서 물에 넣고 빠는데 붉은 물이 나오고, 촉감도 무명을 만지던 맛과는 달랐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작업복으로 화학섬유인 데드론에 염색한 옷이 인기였고, 감쭈시는 속임수(僞裝)로 문혀놓은 것이었다. 상상 이외의 일이었다.

1980년대는 그런대로 옛것 잇기에서, 90년대는 산업화 공업화하면서 실용과 간편함이 요구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화학섬유로 된 서양식 작업복에 옛 갈옷의 정통을 모방하여 감물을 이용한 새 얼굴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4) 1990년대 : 재활용 갈옷 지속, 문화상품 새 갈옷 등장

1990년대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향토예비군복 등에 감물을 들인 재활용 갈옷들이 계속 쓰인다. 또한 감물염 옷들이 생활한복 형태로 상품화하여 보급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다.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웰빙, 환경지킴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갈옷류가 제주의 상징상품으로 부각된다. 이때 천연(자연)염색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단체나 개인 여러 곳에서 강습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 각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갈옷과 문화상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4. 2000년대 새롭게 주목되는 갈옷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갈옷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국가에서도 갈옷의 전승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다.

1) 전통기능전승자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통기능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기능전승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1차년도 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1개 종목, 2차년도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28개 종목이 선정되었다.

갈옷만들기는 2차년도 사업이었다. 갈옷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實事)에 의해 2001년 감물염 기능전승자로 이인선(1932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계승자로는 오운자와 송연심이 지정되었다(『우리의 슬기와 기능 이렇게 이어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06.2.). 이로써 감물염은 염색분야로 전국에서 쪽염과 함께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2) 제주10대문화상징 선정

제주도는 제주 및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 역사, 사회생활, 신앙 언어·예술분야별로 선정된 99대 문화상징물 중 제주문화의 핵심집약체로 10대 문화상징을 선정한다. 그 중에서 제주도 갈옷이 ‘사회 및 생활유산분야’에서 ‘풋감즙을 들인 노동복으로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복식유산’으로 선정되었다.(『제주민속사전』 갈옷)

12_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3) 2023년 현재 학술연구 및 현황

염색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연구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감물염색과 직물과의 관계, 응용분야, 염색기법,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방향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학위논문으로 1970년대를 시작으로 석·박사 합 40여 편, 일반 학술지에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30여 편에 달하고 있다.

5. 2023년 현재 갈옷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는 갈옷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비할 때다. 갈옷이 가진 특성인 내구·방오·방수·발수·항균·경제·친환경성 등 갈옷의 탁월한 장점을 알리고,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각광 받는 영원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일들은 도민과 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상호협력하고 이끌어 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제주 갈옷이 미래무형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 가지 과제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1) 도민의 인식 고취 및 체험 기회 확산

(1) 도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개설

- 갈옷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목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위장물 상품개발 막기 등 교육

(2) 상설체험관 운영

- 도민 스스로 쉽게 접근하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관 운영

(3) 지역, 사회단체 연계 강화

- 교육기관, 마을 단체 등 찾아가는 체험교육 강화(교육전문가 활용)

2) 인재양성

(1) 전문가 양성

- 전통갈옷 경험자 발굴과 함께 전승교육 실시

(2) 도 차원의 관리부서 조직

- 감물염색과 갈옷 만들기 체험, 감물염색천을 활용한 제품만들기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집단을 체계적으로 모집 관리

(3) 교육기관 내 갈옷 관련 특화교육의 장소 설치 및 운영

- 전통 체험의 기회 제공
- 특별활동과 체험학습의 날 : 감물들이기 및 작품만들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 수립 시행

-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
- 최근 중국에서 '경극(京劇)'을 초등학교 필수과목으로 넣은 예는 좋은 본보기임.

3)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1) 전시관 및 상설체험교육관 건립 운영

- 갈옷, 염색제품 등 감물 관련 자료를 전시
- 갈옷 만들기, 감물 들이기, 갈옷 입어보기, 감물천 소품 만들기, 체험담 발표정리 등 배움의 장으로 활용

(2) 관광달력 제작 및 배포

- 갈옷 관련 행사 안내 및 홍보

(3) 학술발표 개최 및 지원

- 갈옷과 감염 등 다양한 연구 활동비 지원

(4) 감나무 가로수길 조성 및 감동산 만들기

- 감물 실습자원 확충,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관광효과 기대, 목가구 등 목공예자료 활용

(5) 관광사업 연계

- 감물염색옷감으로 이불 방석 베개 등 침구류와 잠옷 등을 만들어 관광업소 및 병원 등에 보급
- 감물염색천의 우수성 홍보 효과 탁월

6. 나가는 말

1950년대 전후까지도 남아있던 제주 전통입성 양식들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제주 농산어촌 생업인들의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던 정통(正統)갈옷은 1970년대를 하한으로 거의 사라졌다.

1970년대에는 개량복 재활용 감물 옷이 등장하고, 1980~90년대에는 옷감과 감물 이용 방법이 변하면서 새로운 갈옷류가 나온다. 화학섬유와 혼합천연염색재들을 사용한 변형된 상품들이 등장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2000년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통기능지원자 선정, 제주10대문화상징 선정 등 갈옷 관련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요즘에는 옷 외에 모자, 가방, 신발, 지갑 등 감물염색 일상용품에서부터 장식거리까지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병과 재해(災害) 공해(公害) 등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연감물염색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갈옷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옷이다. 노동복으로, 일상복으로 활용하기에도 그 어느 옷보다 탁월하다. 또한 감물염은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실내장치물에도 무한한 무공해자원으로 활용성을 가진 자원이다. 제 명(命)이 다할 때까지 새 시대 새 사람과 지구

를 지켜갈 무공해 노동복 갈옷의 바른 행적과 바른 쓰임은 물론 정통으로 바로 이어가야 한다.

갈옷은 제주 사람의 한(恨)이 서린 옷이자, 자존심이며 긍지이다. 또한 제주 사람과 제주의 감[栴], 제주의 물, 제주의 태양, 거기에 한더위 피약별 아래서 고달픈 삶의 품을 판 댓가(對價)로 하늘이 제주 사람에게 내린 최적(最適)의 선물이다. 이제는 갈옷을 제주의 살길과 후손에게 물려 줄 영원무궁한 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정성과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서양 광부의 노동복이었던 '진(jean)'은 1970년대 이후 세계가 '진 패션'의 절정을 이루었고, 아직도 그 기세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 염액은 공해거리인 화학염료이다. 제주 갈옷, 이에 대적해 볼 만하지 않은가?